

여대생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의복관여와 의복소비행동에 대한 고찰

최 미 영

덕성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 조교수

A Study on the Clothing Involvement and Clothing Consumption Behavior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according to Gender Role Attitude

Miyoung Choi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uksung Women's University

(투고일: 2010. 2. 25, 심사(수정)일: 2010. 6. 21, 게재확정일: 2010. 7. 29)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gender role attitudes affect clothing involvement and clothing consumption behaviors in young female generation by changing the traditional sex role stereotype. For the research,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a month from June 15 to July 15, 2009. Data was collected a total of 368 questionnaires from 20's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analyzed 301 questionnaires with SPSS 12.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on gender role attitudes confirmed the multifactorial theory of gender schema: modern masculinity, conservative gender roles, modern femininity based on emotion, gender role openness, and traditional femininity. Second, gender role attitude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was a little conservative but flexible to accommodate masculinity and active in the emotion expression. Third, gender role attitudes had important effects on clothing involvement which was identified into 4 different factors; fashion involvement, clothing interest, performance risk, and social psychological risk. Fourth, gender role attitudes were related with clothing consumption behaviors as like shopping orientation, on-going information search behavior and brand loyalty because of needs for innovation, exhibition and differentiation.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not only 'androgynous' from modern femininity based on emotion but also 'masculinity' was applied to important fashion marketing strategic tools by statically affecting female consumer's clothing involvement and clothing behaviors.

Key words: gender role attitude(성역할 태도), clothing involvement(의복관여), masculinity(남성성), femininity(여성성), androgynous(양성성), clothing consumption behavior(의복소비행동)

I. 서론

사회의 성역할(gender role) 기준은 남자와 여자에 게 기대하는 역할을 기술하며 각 성의 구성원으로 유목하고 반응하는 고정관념을 반영 한다¹⁾. 과거의 사회에서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은 '현모양처'였지만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이상적인 여성상은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하는 '슈퍼우먼'을 요구한다. 현모양처와 슈퍼우먼의 이미지는 상반되는 것 같지만 이면에는 여성에게 가정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저야한다는 기본전제를 변함없이 깔고 있다. 분명히 과거에 비해 성역할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성역할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리적인 힘보다는 정신노동을 통한 효율적인 가치 및 경제적 부의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과거 전통적인 고정관념에 의한 남녀 간의 역할 구분은 더 이상 무의미하며 공적인 영역뿐 아니라 개인적인 사적 영역에서 남녀 간의 협력과 책임의 공유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가치 변화와 성역할에 대한 논의는 여성학의 발달과 더불어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20세기 후반 이후를 특징짓는 포스트모더니즘도 과거의 성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해체하는데 기여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하나의 획일적인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다원성과 절충주의, 그리고 자아정체성을 규정하는 하위문화 이론 등의 영향으로 여성과 남성의 코드가 혼재되거나 역전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성역할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킨 사조로 이해되고 있다²⁾.

근대 이후 패션 사에서는 성과 관련된 사회가치의 변화를 남성성과 여성성 간에 존재하는 성 정체성의 불안정성을 활용하는 경향으로 풀고 있으며 이성의 복식을 모방하거나, 혹은 특정 소품들을 이용하여 다른 성임을 암시하려는 욕망을 대체로 억압해 왔다. 특히 남성에게서 '페션'이란 여성성이나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으로 표현의 절제가 요구되었으며 특정 주변문화에서만 제한적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여성들은 성역할의 변화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주제로서 옷과 외모단서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의

성역할취향(taste)을 사회의 성 상징체계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표출해왔다.

현대사회는 여성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기대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성역할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남녀 중 어느 특정 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나 차별적 태도를 가지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인간은 출생하는 순간부터 생물학적으로 구분이 되어 매우 다른 물리적 환경, 가치 역할, 경험 등이 제공되면서 후천적인 사회화과정을 통해 남녀의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그 차이의 하나가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감성적이고, 관계 지향적이며, 세심하다는 부분이며 의복행동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가치의 변화가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여성들의 성역할 태도의 차별적 분화가 의복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개인의 성역할 태도는 개인의 가치관, 사회적 역할, 행동방식 등에 반영되는 자아정체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개인이 외모에 관해 가지게 되는 태도, 외모관리 행동 또는 외모를 꾸미는 방식 등에 표출될 뿐 아니라 의복에 대한 관여와 스타일과 브랜드의 선호 및 선택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성역할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성(gender)'과 이러한 '성 관련태도(gender-related attitudes)'에 대한 적절한 개념적 원형의 부재로 인해 연구결과 해석에 있어서 혼란이 지적되고 있다³⁾. 예를 들면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지향성, 성역할 채택, 성 편견, 성역할 고정관념 등과 같이 서로 구별하기 어려운 유사한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다⁴⁾. 이러한 원인으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성역할'에 관한 측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성유형화된 성격적 특징을 평가하기도 하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성유형화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 있으며, 때로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적절한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측정도구가 사용되고 있다⁵⁾⁶⁾.

따라서 성역할을 포함한 성 관련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측정도구를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

기된다. 또한 패션에 표현된 성에 관한 대부분의 많은 선행연구⁷⁾⁸⁾⁹⁾¹⁰⁾가 다양한 이론적 토대로부터 출발해 물질문화의 한 형식으로 패션을 이해하면서 매체에 등장한 성 유형과 유형별 패션의 특징에 대한 실증적 사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개인의 행동방향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특질인 자아정체성의 한 개념으로 성역할 태도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확장은 성역할정체성에 따른 단순한 선호이미지의 파악에서 나아가 외모관련 행동과 의복관련행동 예측을 가능하게 하리라 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여성소비자인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성역할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생각이나 선호도 즉, 태도를 측정하여 다원화된 성 정체성을 규명함으로써 성역할 태도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성역할태도에 따른 집단 간 의복관여의 차이 및 의복소비행동 및 그 동인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성역할태도가 현대 여성소비자들의 의복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심리적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여성소비자들의 시장 세분화 기준 및 마케팅전략에 대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성역할 정체감과 성역할 태도

사회인지 이론에 따르면 출생 후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따라 영 유아기부터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대한 사고와 태도의 습득과정에서 성역할이 발달되고 성정체성(sex identity)이 확립하게 되며 성과 관련된 정보를 분류하는데 사용하는 조직화된 행동 양식인 성에 대한 도식(gender schema)이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¹¹⁾. 즉, 모든 문화와 사회에서는 '성별에 따른 역할(gender)'이 구분되어 있어서 '생물학적인 성(sex)'의 구분과는 상관없이 다양한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에 적합한 가치, 태도, 행동이 개인에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규정되어지는 성역할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남자 혹은 여자로 특징지어 질 수 있는 행동태도 가치, 특성의 기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성역할 관점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독립성, 지배성, 진취성 등은 남성적 특성으로 양육성, 의존성, 수용성 등은 여성적 특성으로 강화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역할은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그 모습이 달라지는 역동적 개념임과 동시에 개인별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성역할 태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함을 주지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역할 태도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Kite¹²⁾에 의하면, 성역할태도는 '성 신념 체계(gender belief system)'의 하위개념이며, 여성과 남성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태도 혹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신념이라고 하였으며, Eckes & Trautner¹³⁾은 '성과 관련된 태도(gender related attitude)'의 하위개념으로 남자와 여자의 일을 직장일과 가정일로 구분하는 성별역할의 분리에 대한 주관적인 지지의 정도라고 하였다. 국내연구로는 양명숙¹⁴⁾이 '성역할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장하경과 서병숙¹⁵⁾이 이와 동일한 의미에서 남성과 여성을 특징짓는 심리적 행동적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포함시켜 성역할 정체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성역할 정체감은 일종의 성역할 자아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믿는 '남성다움' 또는 '여성다움'에 대한 자기지각이며 개인의 행동 및 자아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¹⁶⁾. 따라서 개인의 성역할 태도는 개인의 가치관, 사회적 역할, 행동방식 등에 반영되는 자아정체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개인이 외모에 관해 가지게 되는 태도, 외모관리 행동 또는 외모를 꾸미는 방식 등에 표출될 뿐 아니라 의복에 대한 관여와 스타일 및 브랜드의 선호, 선택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될 수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최근의 성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은 성역할 개념을 남성성과 여성성이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양극

을 이루는 단일개념 모델로 가정하기 보다는 다차원적 모델을 채택하여 연구하고 있다¹⁷⁾¹⁸⁾¹⁹⁾²⁰⁾. 모든 사람은 생물학적 성과 관계없이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공유할 수 있다는 양성적 개념이 1970년대 들어서 Bem²¹⁾과 Spencer 등²²⁾에 의해 도입되면서 이러한 성역할의 다차원적인 체계가 제안되었다. 이들이 제안한 양성성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바람직한 특성을 모두 공유한 개념으로 심리적 양성성은 한 개인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면서 이를 통합시켜 당면한 상황에 따라서 도구적 역할과 표현적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성격개념이기 때문에 양성적 성향인 사람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린다고 하였다.

다차원적인 성역할 개념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역할 개념의 다양한 요소를 생각해야 한다²³⁾²⁴⁾. Signorella²⁵⁾은 성역할 개념을 먼저 타인과 자신의 요소로 나누었고, 다시 타인에 대한 성역할 개념을 지식과 태도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성역할 개념은 지식과 선호도로 분류하였다. 타인과 자신으로 분류한 성역할 개념은 다시 직업, 활동, 특성의 세 가지 영역으로, 그리고 여성성과 남성성의 두 가지 성별유형으로 분류하여 다차원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Gaskell²⁶⁾은 여성성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고 성역할의 사회구조적 측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역할을 인성특성, 성별 분업, 권력관계, 성차별에 대한 인식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심미옥²⁷⁾은 성별 분업, 남녀 간의 위계관계, 기회, 남녀관계에 대한 도덕적 기준, 외모에 대한 기준, 남녀의 능력차에 대한 신념과 행동규범의 여섯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대한국여성연구소의 여성학 영역별 연구²⁸⁾에서 이해성은 한국인의 여성에 대한 태도를 사회적 성역할, 가정에서 성역할, 성관계, 성 고정관념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준과 기대를 반영하는 성역할태도를 개인의 내적 특성영역으로 보고 성정체성 문제와 관련된 동성애에 대한 지각을 포함하여 성역할개념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 이해하여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성역할 태도의 하위차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현재 대학교육을 받고 있는 여대생의 성

역할 태도는 기성세대의 성역할 태도와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며 성역할의 하위영역별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2. 의복관여

관여는 개인의 관련성 및 중요성으로 동기화, 각성 또는 관심의 상태로 이 상태는 과정 속에 존재한다²⁹⁾. 의복관여에 대해서는 유행 및 의복구매에 관련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고관여와 저관여, 감정적관여와 인지적 관여, 즐거움/관심, 상징성/표현, 위험지각 또는 유행성 등 적어도 2개 이상의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³⁰⁾³¹⁾³²⁾.

이러한 의복관여는 정보탐색행동, 의복쇼핑성향, 충동구매행동 등에 유의한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가치와 욕구, 자아개념과 함께 감정적 애착을 반영한다. 관여의 수준 및 차원에 따라 의복관련행동과 쇼핑성향 등에 영향을 미쳐 고관여 집단이 저관여 집단에 비해 의복평가기준이나 점포선택 요인에 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저관여 집단이 경제적 요인을 중요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³³⁾. 또한 옥경은³⁴⁾은 의복 고관여 집단은 유행, 스타일 등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가격에 대한 위험지각도 높아 구매 시 더 많은 정보탐색행동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의복관여 차원별로는 유행성이 상표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감정적 관여가 유행의견 선도력과 쇼핑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은 과거의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남성성을 개발한 강한 여성이나 여성성을 개발한 남성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남녀역할 구분을 희미하게 하고 있으며, 남녀 복식에서의 성 구분 경계를 모호하게 할 뿐 아니라 의복과 유행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 성역할의 사회화 도구로서 의복은 성정체성의 인지와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표출하는 정치적, 이념적 목적에서 사용되었던 데 비해 현대사회에서 의복을 통해 표현되는 성역할은 개인의 개성과 성향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의복관심과 유행 및 지각된 위

함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의복관여를 정의하고, 이는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서 가치와 자아개념의 한 부분인 성역할 태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3. 성역할태도와 의복관련행동

모든 사회·문화는 각각 여성과 남성에 대한 특별하고 고유한 행동기대와 규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이탈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제재되기 때문에 성역할에 있어서 사회·문화적인 요인이라 개인의 삶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의복과 외모는 성에 대한 인지단서로써 성역할 정체성의 표현적, 도구적 기능을 수행해왔다. 과거 의복과 관련하여 여성성은 장식성 또는 정교화된 코드로, 남성성은 절제된 코드 또는 여성성의 부재로 정의 되었었다³⁵⁾. 이를 근거로 하여 성역할 정체감과 이에 따른 선호 의복이미지에 대한 유의한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는 여성을 중심으로 남성성 유형은 남성적 의복스타일을, 여성성 유형은 여성적 의복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하였다³⁶⁾³⁷⁾.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명희³⁸⁾의 연구에서도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의복이미지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복은 전통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과 관련되는 상품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의복쇼핑활동자체를 여성적 영역으로 여겨왔다³⁹⁾. 의복행동과 관련해서 Campbell⁴⁰⁾은 남성은 도구적 특성을 지니고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필요에 근거한(needs-driven)' 쇼핑활동을 하는 데에 반하여 여성은 표현적 특성을 지니고 쇼핑 그 자체를 즐길만한 활동으로 본다 하였다. 의복 착용동기와 의복을 통한 추구혜택 측면에서 Simmel⁴¹⁾에 따르면 여성은 역사적으로 하위의 성으로 개성을 추구하는 의복보다는 남편의 부와 신분을 과시할 수 있는 복식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이루어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윤정⁴²⁾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외모관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특별히 여성적 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남성성이 높은 사람이 외모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

장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패션의 의미는 도구적, 표현적 그 이상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과거 이분법적 사고에 의한 생물학적 성과 관련하여 단정 짓기 힘들어졌다. 비록 아직까지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여성들에 대한 제도적 배려와 인식의 부족을 인정해야 하지만 현대 여성의 지위가 상승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남성에 비해 어려움이 있긴 해도 보편화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확보된 독립된 경제력의 향상은 소비주체로서의 여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여성은 독립적인 경제적 주체로서 존재할 뿐 아니라 구별욕구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의복을 선택하고 유행을 선도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역할 정체감이 의복행동 및 외모관리 행동 그리고 의복만족도 등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백선영, 이선재⁴³⁾는 양성성 유형의 남녀 고등학생은 의복관심이 높고 합리적인 의복행동을 한다고 하였고, 이주현 외⁴⁴⁾의 연구에서는 남성성 유형의 남자 고등학생은 의복동조성이 높다고 하였다. 원미숙⁴⁵⁾은 유니섹스 행동과 성역할에 대한 태도가 남자 대학생에서는 여성적 집단에서 유니섹스의복에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고, 성역할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남학생이 유행에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김윤정⁴⁶⁾의 연구에서도 성역할에 개방적인 양성성 집단이 유행형 복장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한 개방적인 집단일수록 유행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성적인 사람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적응력이 높을 뿐 아니라 자아실현욕구가 강하며, 자신을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 생각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생활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특히 패션과 관련된 의복소비행동은 성역할 태도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아 단순히 외모상징의 단서가 아니라 개인 성향의 표출방법과 표현형식으로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상징성을 가지게 되었다. 현대사

회는 산업의 발달과 매스미디어의 보급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성역할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여성의 사회생활 증가와 남녀평등사상으로 인해 남성들의 부양의무축소와 여성의 가사노동이 감소하는 등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성역할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그 경계가 모호해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주체로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및 가치관의 변화를 겪고 있는 20대 여대생들의 성역할 태도와 의복관련 행동에 관한 본 연구는 사회현상의 이해에서 더 나아가 유행을 선도하는 소비주체로서 여성소비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함께 이들의 의복행동을 이끄는 심리적 동인의 하나로 다원화된 성역할태도를 이해함으로써 실무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Ⅲ. 실증적 연구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현재 대학교육을 받고 있는 여대생의 성역할 태도는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기성세대의 성역할 태도와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들의 성역할 태도는 개인에 따라 영역별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증적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세대와 교육수준에 따라 성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피험자를 20대 초반의 여대생으로 제한시켜 여대생집단의 다원화된 성역할 태도를 규명하고 성역할 태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의복소비에 대한 행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여대생 집단의 성역할 태도를 구성하는 하위차원을 알아본다.
- 연구문제 2. 성역할 태도에 따른 의복관련 및 의복위험관련의 영향관계를 알아본다.
- 연구문제 3. 성역할 태도에 따른 의복소비행동의 영향관계를 알아본다.

2. 측정도구 및 자료수집

조사기간은 2009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간 실시하였다. 총 368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것 중 불완전한 자료나 비조사 대상자의 자료를 제외한 총 301부의 설문지를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설문지 구성은 4가지 하위항목으로 구성된 성역할 태도, 인구 통계적 특성, 의복 관여 및 의복소비행동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화에 따라 변하는 가치규범으로 다차원적 측면에서 성역할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Liben & Bigler⁴⁷⁾가 논의했던 부분을 고려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을 독립된 개념으로 본 Bem의 'Sex Role Inventory(BSRI)'⁴⁸⁾, Spence, Helmreich의 'The Personal Attitudes Questionnaire(PAQ)'⁴⁹⁾와 정진경이 개발한 KSRI(Korean Sex Role Inventory)⁵⁰⁾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측정하는 문항 및 최근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자주 등장하는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여 성역할 태도를 측정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 성역할 태도는 성역할 지식이나 지각정도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성역할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생각이나 선호도 즉, 태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패션과 관련된 소비자 관여로 의복관련은 의복에 대한 동기화, 각성 또는 관심의 상태로 관심, 유행, 상징, 즐거움, 위험 등의 다차원으로 구성되어지지 만⁵¹⁾, 본 연구에서는 의복채택과 구매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서 의복관심, 유행과 지각된 위험에 초점을 두고 성역할태도의 하위차원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위험에 대한 차원은 경제적/성과적 위험과 사회/심리적 위험문항을 모두 포함시켜 유행스타일의 선택 및 구매 시 지각된 위험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고찰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의복소비행동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의복구매의사결정의 선행변수로 빈번히 연구되어온 과시욕구, 차별화 욕구, 혁신성향 그리고 의복구매의사결정의 행동적 변수로 지속적 정보탐색행동과 쇼핑관심 및 브랜드 충성에 관한 문항을 포함시켜 연구자가 개발하였

다. 과시욕구는 '주변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며 과시욕이 있다', 차별화 욕구는 '남과 차별화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로, 혁신성향은 '새로운 정보수용이 빠르고 실생활에 빨리 도입하는 편이다'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지속적 정보탐색은 평상시 유행정보에 민감하며 관심을 가지는지에 관한 2문항, 쇼핑관심은 패션제품의 구입목적외의 아이쇼핑을 자주하고, 쇼핑을 즐기는지에 관한 2문항, 브랜드 충성은 특별히 선호하는 브랜드에서의 반복적인 구매에 관한 2문항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3. 연구대상의 특징

본 연구는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22.1세였고 학년분포는 1학년이 19.9%, 2학년 18.2%, 3학년 22.4%, 4학년 36.7%, 대학원 2.8%의 분포를 보였다. 심리적인 사회계층은 대부분의 응답자인 85.6%가 중류층이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쇼핑습관을 보여주는 월평균 의복비 지출 분포에서도 43.3%가 10만원~20만원, 14.0%가 20만원~30만 원 정도의 의복소비 지출규모

를 나타내 사회적,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여대생의 성역할태도 하위구성차원

본 연구의 대상인 여대생들의 성역할태도에 대한 하위구성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14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Varimax에 의한 직교회전을 실시하여 요인을 확인하였으며, 측정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크론바하알파값을 구하였다. 요인분석결과 고유값 1인상인 5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이 설명하는 총 변량은 54.49%로 나타났다(표 1). 추출된 하위구성차원들을 측정하고 있는 항목들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크론바하알파값은 .64~.85로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 1은 남성적 성역할에서 기대되는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리더쉽과 주도적인 성향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자기주도적 남성성추구'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2는 성역할구분에서 보수적 태도를 보이는 문항

<표 1> 여대생의 성역할태도구성차원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요인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신뢰도 (α)
요인1: 자기주도적 남성성 추구	어떤 모임이든 리더쉽을 발휘하는 편이다.	.800	2.232	15.946 (15.946)	.85
	나는 매사에 적극적이다.	.740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는 편이다.	.621			
요인2: 보수적 성역할 구분	여자끼리 키스하는 모습(예: 마돈나와 브리트니)은 거부감이 든다.	.764	1.932	13.798 (29.744)	.84
	남자끼리 섹시 댄스를 추는 것을 보면 불쾌하다.	.728			
	담배 피는 여성의 모습이 멋있어 보인다.(R)	.573			
요인3: 적극적 감성 추구	타인의 기분을 잘 맞추어준다.	.658	1.242	8.875 (38.619)	.74
	옷을 직접 고르고 코디하는 것을 좋아한다.	.635			
	잘 꾸미는 사람이 매력적이다.	.538			
요인4: 개방된 성역할 지향	남성의 옷, 액세서리 등을 사서 입어보고 싶다.	.641	1.165	8.325 (46.944)	.73
	보이쉬한 여자에게 관심이 간다.	.566			
	요리 잘하는 남자는 매력적이다.	.556			
요인5: 전통적 여성성 추구	나는 누구에게 의존하기보다 독립적인 것을 좋아한다.(R)	.642	1.056	7.542 (54.486)	.64
	다른 사람에 비해 질투심이 많다.	.576			

R : 역코딩된 문항

들로 구성되어 '보수적 성역할 구분'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최근 성역할 변화에 따라 전통적 여성적 성역할의 긍정적인 부분의 부각과 동시에 변화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적극적 감성추구'로 명명하였고, 요인 4는 성역할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개방된 성역할지향'으로 명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요인 5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감상적인 여성성을 부각하는 전통적 여성적 성역할과 관련된 '전통적 여성성추구'로 명명하였다. 이에 따라 여대생들의 성역할 태도는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차원으로 보는 것에서 나아가 변화된 사회 가치를 수용하여 다차원으로 세분되어 구성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분석결과에서 요인 화으로 추출된 자기주도성은 과거 전통적인 남성성을 상징하던 권위주의적이면서 호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힘을 갖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을 중요시하고자 하는 현대적 의미에서 해석되는 남성성의 성향으로 이해하였다.

성역할 태도에 대한 하위구성차원의 평균값은 편차를 가지고 있지만 응답자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성역할 구분에 대해 보수적

인 성향이 높은 것(3.8점)으로 나타났으며, 성역할에 대해 감성추구성향에 관한 태도점수가 5점 리커트 척도 기준 3.7점, 자기주도성을 보여주는 남성적 성향에 대한 태도점수도 3.3점으로 나타났고, 전통적 여성성에 대해서는 3.0점, 성역할 개방에 대해서는 2.8점으로 미묘한 차이지만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학력이 높은 여성은 교육을 통해서 성취지향성, 평등, 공정성에 대한 가치를 내면화하기 때문에 성에 대한 개방적인 분위기를 인정하고 전통적 성역할을 거부할 것이라는 선행연구⁵²⁾⁵³⁾와는 달리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국내 여대생들은 문화적 규범에 따른 전통적인 가치관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성역할 구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여대생의 성역할태도와 의복관여의 영향관계

성역할태도의 하위차원이 의복관여에 차별적 영향을 주는지 규명하기 위해 먼저 의복관여에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13문항에 대해 주성분 분석과 Varimax에 의한 직교회전을 실시하여 의복관여가 요인분석에 의해 요인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 여대생의 의복관여구성차원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요인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신뢰도 (α)
요인1: 유행성	나는 유행에 민감하고 새로운 유행스타일을 잘 받아들이는 편이다.	.893	3.829	29.454 (29.454)	.838
	새로운 유행스타일이 매장에 출시되면, 나는 그것을 구매할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863			
	나는 최근 유행에 대해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아는 편에 속한다.	.823			
요인2: 성과적 위험	값에 비해 얼마나 유용하게 입을지 생각한다.	.820	2.853	21.948 (51.402)	.881
	그만한 가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브랜드인지 생각한다.	.784			
	옷의 스타일이나 색상이 세탁으로 또는 오래입어 손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763			
요인3: 의복관심	옷을 구입한 후 활동 시 기능적으로 몸에 편할지 생각한다.	.746	1.264	9.726 (61.128)	.798
	옷은 내가 누구인지 표현하는데 도움이 된다.	.816			
	옷을 잘 입는 것은 내 생활에서 중요한 일이다.	.779			
요인4: 사회심리적 위험	나는 옷에 관심이 많다.	.772	.968	7.449 (68.577)	.685
	그 옷을 입는 것이 눈에 튀어 불편하지 않을지 생각한다.	.743			
	그 옷을 입을 경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한다.	.698			
	그 옷을 입었을 때 나의 평소 이미지와 잘 맞을지 생각한다.	.613			

〈표 3〉 의복관여에 대한 여대생 성역할태도의 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유행성			의복관심			성과적위험			사회심리적위험		
		β	t	p	β	t	p	β	t	p	β	t	p
성역할 태도	자기주도적 남성성추구	.229	4.309	.000	.191	3.783	.000	.055	.988	.324	-.019	-.340	.734
	보수적 성역할구분	-.098	-1.849	.065	.007	.146	.884	.249	4.454	.000	.186	3.292	.001
	적극적 감성추구	.350	6.596	.000	.460	9.129	.000	.124	2.222	.027	.095	1.686	.093
	개방된 성역할 지향	.100	1.886	.060	.143	2.841	.005	.103	1.848	.066	.029	.516	.607
	전통적 여성성추구	-.031	-.577	.564	-.066	-1.312	.191	-.089	-1.598	.111	.209	3.708	.000
	F	13.902***			21.525***			6.344***			5.566***		
	R ²	.181			.261			.084			.073		

*** p<.001

Scree test를 참고하여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으며, 측정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크론바하알파값을 구하였다. 전체변량 중 이들이 설명하는 총변량은 68.58%로 나타났다(표 2). 추출된 하위구성차원들을 측정하고 있는 항목들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크론바하알파값은 .69~.88로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차원의 구성개념에 따라 요인 1은 '유행성'으로 새로운 유행스타일에 대한 관심과 수용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변량은 29.45%로 의복관여의 하위차원 중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다. 의복의 표현성과 중요성 및 의복관심에 관한 문항이 포함된 요인 3은 '의복관심'으로 명명하였다. 경제적, 성과적 위험문항을 포함하는 요인 2의 총 변량은 21.95%로 의복관심차원보다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성과적 위험'으로 명명하였고, 요인4는 '사회심리적 위험'으로 명명하였다. 이상 여대생의 의복관여에 관한 하위차원은 유행성과 의복관심, 지각된 위험의 성과적 위험과 사회심리적 위험의 4요인으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여대생의 성역할 태도가 의복관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의복관여 각 차원을 종속변수로, 성역할태도의 각 하위차원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회귀분석에 투입한 독립변수에는 각 차원에 대한 요인점수를, 종속변수는 원점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의복관여의 유행성차원에는 성역할 태도 중 적극

적 감성추구($\beta=.350, p<.001$)와 자기주도적 남성성추구($\beta=.229, p<.001$)가 유의한 정적상관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관심에는 적극적 감성추구성향($\beta=.460, p<.001$), 자기주도적 남성성추구성향($\beta=.191, p>.001$)과, 개방된 성역할 지향($\beta=.229, p<.01$)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위험관여항목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보수적 성역할구분성향($\beta=.249, p<.01$)과 적극적감성추구성향($\beta=.124, p<.05$)이 성과적 위험에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보수적 성역할구분성향($\beta=.186, p<.001$)과 전통적 여성성추구성향($\beta=.209, p<.001$)이 사회심리적 위험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기주도적 남성성추구성향은 유행성과 의복관심 차원에만 유의한 수준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고, 지각된 위험의 두 차원과도 영향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외적 표현에 적극적인 남성성이 유행선도와 개성표현과 관련된 유행성과 의복관심차원의 의복관여로 표현된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양성적인 특징으로 강조되고 있는 적극적 감성추구성향은 의복관여 차원 중 사회심리적 위험지각을 제외한 3개 차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류제품의 두드러진 특성인 상징적이고 표현적인 측면이 감성추구성향에 잘 소구됨을 드러내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성향이 강할수록 의류제품 및 구매에서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지하고 비용대비 효율성을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성과적 위험에 대한 관여도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관계로 반응한 것으로 보

이다. 개방적 성역할 지향성향은 의복관여의 4차원 중 의복관심차원에만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의복을 성역할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표출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인지하고 활용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역할태도 하위차원 중 보수적 성역할 구분성향은 유행성과 의복관심차원에는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고, 지각된 위험의 2차원에만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 소극적 의복행동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존적, 수용적 성향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여성성 추구도 타인 의식적 행동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위험차원과만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 보수적 성역할 구분성향과 함께 보수적인 의복관련 행동을 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유행과 패션에 대한 관심이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20대 여대생들은 적극적 감성 추구하고 자기주도적 남성성 성향에 의해 유행과 개성을 모두 추구하는 역동적인 소비행태를 보이며, 이들 여대생들의 의복에 대한 관심은 현대적 양성성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자기주도적 성향, 감성추구성향 및 성역할에 대한 개방적 태도에 의해 설명된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에 유연한 양성성 집단이 유행 스타일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⁵⁴⁾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한 유연한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유행을 수용하고 의복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 현대 패션현상이 더 이상 단순한 의복관심이나 과거 전통적 여성성에서 추구되는 수용적 태도만 설명되지 않으며, 유행스타일의 선택과 구매과정에서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에 바탕을 두는 강한 리더십과 혁신성의 수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감성을 중시하는 성향과 더불어 자기표현이 분명한 남성성 성향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즉, 높은 교육혜택을 받고 있는 여대생의 경우 현대적 의미로 해석되는 남성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자기표현을 억제하지 않으며, 자신의 외모관리에도 적극적인 행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의 남성적 성향과 유연한 성역할태도는 의복관심과 유행관여에 유의한 영향변

수로 주목받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3. 여대생의 성역할태도와 의복행동의 영향관계

보편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보다 의복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는 성향이 크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여대생들은 의복에 관심이 많고 타인을 의식하며 의복을 과시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내적인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정도가 크며 심리적으로 의복에 의존한다⁵⁵⁾. 또한 대체적으로 의복 및 패션관여가 높기 때문에 평상시 의복 및 유행정보를 추구하여 지속적 정보탐색도 많이 한다. 하지만 외모관심과 매력을 표현하는 방향은 성역할 태도 차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소비행동에 대한 성역할 태도 하위구성차원의 영향력 관계를 밝히기 위해 의복관여 및 의복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적 동인인 혁신성, 과시욕구, 차별화 욕구, 그리고 의복관련행동을 대표하는 정보탐색행동과 쇼핑관심, 브랜드 충성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표 5> 제시하였다.

의복소비행동의 동인으로 혁신성에는 성역할태도 중 적극적 감성추구($\beta=.274, p<.001$)가 유의한 정적상관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시 욕구에는 자기주도적 남성성추구성향($\beta=.250, p<.001$), 적극적 감성추구성향($\beta=.220, p<.001$), 전통적 여성성추구($\beta=.139, p<.01$)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여주었으며, 차별화 욕구에는 자기주도적 남성성추구성향($\beta=.273, p<.001$), 적극적 감성추구성향($\beta=.210, p<.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복소비행동항목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적극적 감성추구성향($\beta=.307, p<.001$), 자기주도적 남성성추구성향($\beta=.166, p<.01$), 개방된 성역할지향($\beta=.139, p<.01$)이 지속적 정보탐색에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적극적 감성추구($\beta=.186, p<.001$)만이 평상시 쇼핑관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충성행동에 대해서는 자기주도적 남성성추구성향($\beta=.250, p<.001$), 적극적 감성추구성향($\beta=.158, p<.01$), 전통적 여성성추구($\beta=.139, p<.01$) 순으로 유의한 영향이 관찰되었다.

유행성과 의복관심차원의 관여가 높았던 자기주도

<표 4> 의복소비 행동의 동인에 대한 여대생 성역할태도의 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혁신성			과시욕구			차별화욕구		
		β	t	p	β	t	p	β	t	p	β	t	p
성역할 태도	자기주도적 남성성추구	.274	4.826	.000	.250	4.510	.000	.273	.4922	.000			
	보수적 성역할구분	-.078	-1.363	.174	-.045	-.814	.416	-.068	-1.232	.219			
	적극적 감성추구	.074	1.316	.189	.220	4.012	.000	.210	3.845	.000			
	개방된 성역할 지향	.056	.979	.329	.042	.752	.453	.082	1.467	.144			
	전통적 여성성추구	-.043	-.078	.443	.139	2.544	.011	.029	.523	.601			
F		6.741***			9.994***			10.171***					
R ²		.089			.133			.135					

*** p<.001

<표 5> 의복소비 행동에 대한 여대생 성역할태도의 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지속적 정보탐색			쇼핑관심			브랜드충성		
		β	t	p	β	t	p	β	t	p	β	t	p
성역할 태도	자기주도적 남성성추구	.166	3.107	.003	.060	1.054	.293	.250	4.427	.000			
	보수적 성역할구분	-.060	-1.095	.275	-.014	-.248	.804	-.092	-1.623	.106			
	적극적 감성추구	.307	5.651	.000	.329	5.909	.000	.158	2.837	.005			
	개방된 성역할 지향	.126	2.266	.024	.107	1.863	.063	.036	.631	.529			
	전통적 여성성추구	.071	1.312	.190	.035	.626	.532	.105	1.888	.060			
F		11.457***			8.748***			7.770***					
R ²		.152			.119			.104					

*** p<.001

적 남성성 추구성향은 의복행동의 동인인 혁신성, 과시욕구, 차별화욕구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난다. 비해 적극적 감성추구성향은 과시욕구와 차별화욕구에만 영향을 미친다. 자기주도적 남성성 추구성향은 강한 자신감 표현욕구로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성을 표현하는 과시욕구가 크며 유행 채택에는 적극적일 수 있지만 평상시 쇼핑관심과는 관련성이 없다. 이와 비교하여, 적극적 감성추구성향은 모든 의복행동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아이쇼핑과 같은 지속적 정보탐색을 통해 유행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선호하는 브랜드에 충성적 태도를 가진다. 주목할 부분은 자기주도적 남성성추구는 적극적 감성추구보다 쇼핑을 즐기거나 정보탐색의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유행의 채택과 확산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좀 더 적극적인 채택행동과 과시경향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즉, 자기주도적 남성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주도권을 갖으려는 성향으로 유행이 채택되는데 기여하며, 적

극적 감성추구는 유행 자체를 즐기면서 충분히 자기표현과 자기만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특징을 가져 유행확산과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성역할태도의 다차원성에 대한 인정은 같은 행동이라도 성역할 태도에 따라 행동동인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좀 더 정밀한 시장세분화 변수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성역할에 대한 보수적 태도는 자기표현에도 보수적 성향을 보여 모든 의복소비행동 동인과 의복소비행동과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통적 여성성추구는 자기표현에 적극적이지 않아 의복행동 동인인 혁신성, 과시욕구, 차별화욕구와 어떤 영향관계도 나타나지 않았고, 정보탐색과 상표선택에 있어서도 아무런 영향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즉, 개인의 성격적 특질이 의복관련행동에도 일관된 경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양성적인 사람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적응력

이 높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응답자인 여대생들이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감상적이며, 의존적인 수동적 여성상에서 벗어나 성역할에 대해 양성적 성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새로운 여성상을 추구하면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함과 동시에 성역할에 개방적 태도를 표현하는 적극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현대사회에서의 양성적 성향은 여성이 여성임을 포기하고 중성화, 남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체계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새로운 여성의 성역할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최근 강한 여성으로 묘사되는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사회적 성(gender)은 생물학적 성(sex)의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지칭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여성스러움 또는 남성스러움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즉 우리는 여성, 남성으로 태어나지만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이 되도록 학습되어진다. 따라서 사회적 성은 문화에 따라 다르고, 같은 문화 내에서도 시간에 따라 다르며, 다른 사회적 성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중심적 생활양식과 자기표현욕구가 강해지면서 외모를 하나의 경쟁력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현대사회에서 성역할의 변화가 의복에서의 자기표현 및 장식성과 관련된 성적 제약을 깨면서 성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를 개인의 특질로써 받아들여 여대생들의 개성과 유행을 채택하는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연구의 실증적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들의 성역할태도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자기주도적 남성성추구', '보수적 성역할 구분', '적극적감성추구', '개방된 성역할지향', '전통적 여성성추구'의 5개 요인이 추출됨으로써 성역할태도는 변화된 사회 가치를 수용하여 다차원으로 세분되어 구

성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행성이 의복관심과 함께 의복관여의 하위차원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지각이 성과적 위험과 사회심리적 위험으로 분리되어 의복관여가 4개 구성요인으로 요인화 되었다.

셋째, 여대생의 성역할 태도의 하위차원이 의복관여항목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행과 개성을 추구하는 20대 여대생들의 역동적인 소비행태는 성역할에 보다 유연한 '적극적 감성 추구'와 '자기주도적 남성성' 및 '개방된 성역할 지향' 차원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존적, 수용적 성향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여성성추구'는 유행과 의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의 표현보다는 타인 의식적 사회적 위험을 의식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수준이 높은 여대생을 중심으로 여대생의 성역할 태도의 하위차원과 의복행동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복을 통해 자기표현을 하고 유행에 관여하는 것이 여성성에 기인한다는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는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개인의 특질로써 성역할 태도의 하위차원들은 의복행동에 있어서 개성과 유행을 채택하는 차별화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들은 오늘날 여성의 성역할이 넓어지고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억압됐던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며, 기득권을 쥐고 있는 남성의 입장에서 남성에게 알맞도록 구조화된 사회구조가 허물어지는 일로도 설명된다. 즉, 바람직한 여성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한편 이와 함께 훈련된 남성성이 조화롭게 발달된 양성성을 소유한 여성은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체계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새로운 여성상으로 사회적으로 규정된 전통적인 여성 역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과거의 여성스러움과 남성스러움은 의복행동성향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선호하는 이미지로 규정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집단 간 선호하는 이미지의 차이를 규명한다면 유행과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여대생들의 시장세분화와 더불어 마켓 안에서의 이미지 포지셔

닝 전략수립의 방향을 제시해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본 논문의 실증적 연구에서 다루어진 성역할 태도에 대한 측정문항은 엄격히 말해서 성역할고정관념에 대한 태도측정이었기 때문에 측정도구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의복에 의한 성역할 태도로 좀 더 확장된 영역에서 이들 변수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피험자들의 가치와 태도 및 행동성향에 대해 조사되었기 때문에 실제행동과 다르게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실증적 연구의 대상이 성역할에 대해 진보적인 태도를 지닌 여대생으로 제한되어졌던 점을 고려해볼 때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변인인 연령대와 교육수준, 나아가 성별에 따라 의복행동의 차이를 비교하는 이 분야의 폭넓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1) Shaffer, D. R. (1999). Sex differences, gender-role development, and sexuality. In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Belmont, CA: Wadsworth Pub., pp. 231-259.
- 2) 최경희 (2008). 2000년 이후 한국 남녀 패션 잡지에 표현된 여성성과 남성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6(1), pp. 1-21.
- 3) Glick, P. & Hilt, L. (2000). Bad but bold: Ambivalent attitudes toward men predict gender inequality in 16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pp. 713-728.
- 4) Eckes, T. & Trautner, H. M. (2000). *The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of Gender*. Mahwah, NJ: Lawrence Erlbaum, pp. 123-174.
- 5) Ashmore, R. D., Del Boca, E K., & Bilder, S. M. (1995).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Gender Attitude Inventory, a structured inventory to assess multiple dimensions of gender attitudes. *Sex Roles*, 32(11-12), pp. 753-785.
- 6) Bigler, R. S. (1997).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children's sex typ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pp. 53-69.
- 7) 김은희 (2002). *복식에 표현된 여성의 몸 이미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1-154.
- 8) 송명진, 채금석 (2001).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성정체성의 표현양상. *복식*, 25(2), pp. 327-339.
- 9) 정세희, 양숙희 (2002). 1930~1990년대 영화의상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남성성, 여성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5), pp.63-78.
- 10) 최현숙 (2000).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 페미니즘,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1-166.
- 11) Mary A. L. & Parzinger, M. (2007). Gender schemas: A cognitive explanation of discrimination of women in technology. *Journal of Business Psychology*, 22, pp. 91-98.
- 12) Kite, M. E. (2001). Changing times, changing gender roles: Who do we want women and men to be? In R. Unger (Ed.),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women and gender*. New York: Wiley, pp. 215-227.
- 13) Eckes, T. & Trautner, H. M. *op. cit.*, pp. 123-174.
- 14) 양명숙 (1996). 예비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pp. 167-181.
- 15) 서병숙 (1993).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pp. 156-168.
- 16) Block, J. H. (1973). Conception of Sex Role: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 pp. 512-526.
- 17) Huston, A. C. (1983). Sex-typing. In P.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rd ed.)* New York: Wiley, pp. 387-467.
- 18) Signorella, M. L., Bigler, R. S., & Liben, L.S. (1993).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children's gender schema: A meta-analysis review. *Developmental Review*, 13, pp. 147-183.
- 19) Signorella, M. L. (1999). Chapter 5: Multi-dimensionality of gender schema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gender-related characteristics. In *Sexism and stereotypes in modern societ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APA), pp. 107-126.
- 20) Spence, J. T. (1993). Gender-related traits and gender ideology: Evidence for a multifactorial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pp. 624-635.
- 21)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pp. 155-162.
- 22) Spence, J. T. & Helmreich, R. L. & Stapp, J. (1974). The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A measure of sex role stereotypes and masculinity-femininit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4, pp. 42-44.
- 23) 김경미, 양혜영 (2005). 성역할 개념의 발달과 분화: 다차원적 관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3), pp. 1-20.
- 24) Liben, L. S., & Bigler, R. S. (2002). The developmental course of gender differentiation: Concep-

- tualizing, measuring, and evaluating consumers and pathway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7(2, Serial No. 269).
- 25) Signorella, M. L. *op. cit.*, pp. 107-126.
- 26) Gaskell, J. S. (1975). The sex-role Ideology of working class girls.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12(4), pp. 453-461.
- 27) 심미옥 (1991). 아동의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9, pp. 89-104.
- 28) 이대한국여성연구소 (1989). *여성학 영역별 연구(심리 여성학: 한국인의 여성에 대한 태도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편), pp. 214-220.
- 29) Rothschild, M. L. (1984). Perspectives on involvement: Current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1, pp. 216-217.
- 30) 성희원 (2009). 남성소비자 세분시장 분석: 의복관여와 점포이미지 속성에 따른 유통업체 선택행동 비교.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3), pp. 390-398.
- 31) 이영선 (1991). *소비자의 의복관여와 외적 정보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130.
- 32) 황진숙 (2003). 의복관여와 인터넷사용이 의류제품의 인터넷 쇼핑태도 및 인터넷 구매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2), pp. 177-187.
- 33) 구양숙, 추태귀 (1999). 의복관여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4(2), pp. 173-185.
- 34) 옥경은 (2000). *상황과 소비자 특성에 따른 의류제품의 추구해탈과 정보원 활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103.
- 35) Michelman, S. O. (1999). Chapter 5. Appearance through gender and sexuality. In M. L. Camhost, K. A. Miller, & S.O. Michelman(Eds.), *The meaning of dress*. New York: Fairchild, pp. 168-176.
- 36) 이현미, 임숙자 (1987). 어머니와 딸의 성역할 정체감과 음양 의복행동 간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11(3), pp. 67-77.
- 37) Davis, L. L. (1984-85). Sex, gender, identity, and behavior concerning sex-related clothing.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3(2), pp. 20-24.
- 38) 이명희 (1993). 한국과 미국 남녀 대학생의 의복이미지 선호도와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pp. 367-379.
- 39) Bakewell, C., & Mitchell V-W. (2004). Male consumer decision-making styles. *International Review of Retail, Distribution and Consumer Research*, 14(2), pp. 223-240.
- 40) Campbell, C. (1997). Shopping, pleasure and the sex war. In P. Falk & C. Campbell(Eds.) *The shopping experience*. London: Sage, pp. 168-176.
- 41) Simmel, G. (1971). *Georg Simmel on Individuality and Social Forms*, tr. by Levine, D. 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294-339.
- 42) 이윤정 (2007). 성역할 정체성 및 성역할 불일치가 여성과 남성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30(4), 436-446.
- 43) 백선영, 이선재 (2000). 고교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관여 및 의복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1), pp. 55-66.
- 44) 이주현, 강혜원, 조길수 (1986). 남자 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성역할태도간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0(3), pp. 67-70.
- 45) 원미숙 (1983). 유니섹스 행동과 성역할과의 관계-남녀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7(2), pp. 37-44.
- 46) 김윤정 (1982). *남자 대학생의 유행선도력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의복행동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74.
- 47) Liben, L. S., & Bigler, R. S. (2002). The developmental course of gender differentiation: Conceptualizing, measuring, and evaluating constructs and pathway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7(2, Serial No. 269).
- 48) Bem, S. L. *op. cit.*, pp. 155-162.
- 49) Spence, J. T. & Helmreich, R. L. (1972). Th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An objective instrument to measure attitudes toward rights and roles of women in contemporary societ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2, pp. 66-67.
- 50)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 *한국심리학회지:사회*, 5, pp. 82-92.
- 51) 이영선 (1991). *소비자의 의복관여와 외적 정보 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130.
- 52) Osmond, M. W. & Martin, P. Y. (1975). Sex and Sexism: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 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11), pp. 744-758.
- 53) Brogan, D. & Kutner, N. (1976). Measuring sex-role orientations: A normative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pp. 31-40.
- 54) 김윤정. *앞의 책*, pp. 1-74.
- 55) 심정은, 고에란 (1997).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pp. 1334-1345.